

## 【 주간포커스 】

#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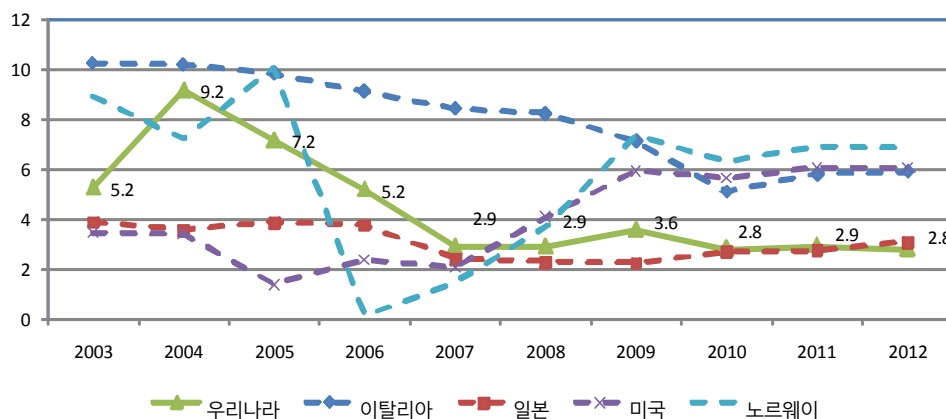
유진아 연구위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비 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 저축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구축, 저금리 지속, 교육비 부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계 저축률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신용카드 사태 직후 잠시 회복되었던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소비국가로 알려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OECD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2.8%로 미국 가계 저축률 5.7%의 1/2수준
  -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축소·조정되고 가계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저축률이 상승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저축률이 하락

<그림 1> 주요국 가계 저축률 추이



자료: OECD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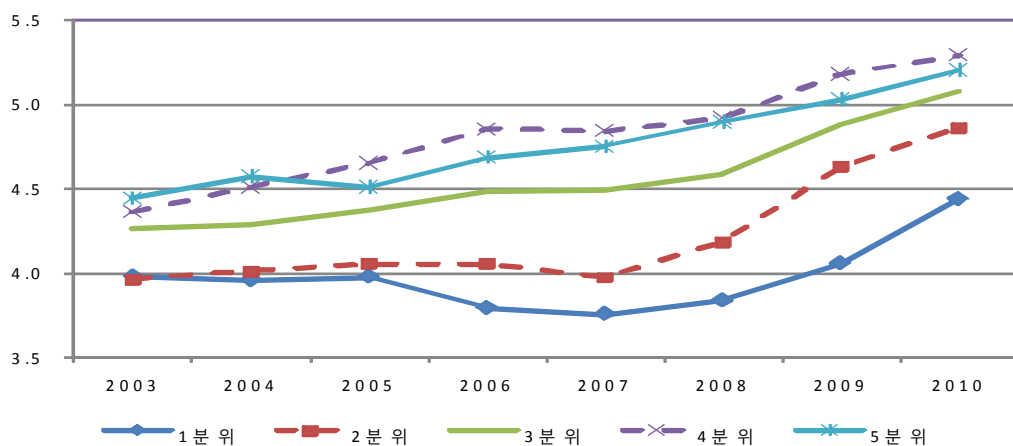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구축, 저금리 지속,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 교육비 부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의 경우 미래 소비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계의 사적저축 동기(예비적 동기)를 떨어뜨림.

○ 공적저축이 사적저축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의 저축 여력을 떨어뜨림.

– 국민연금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저축 증가에 따른 가계저축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

<그림 2>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연금 및 사회보험의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둘째, 2000년대에 들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계의 저축유인을 하락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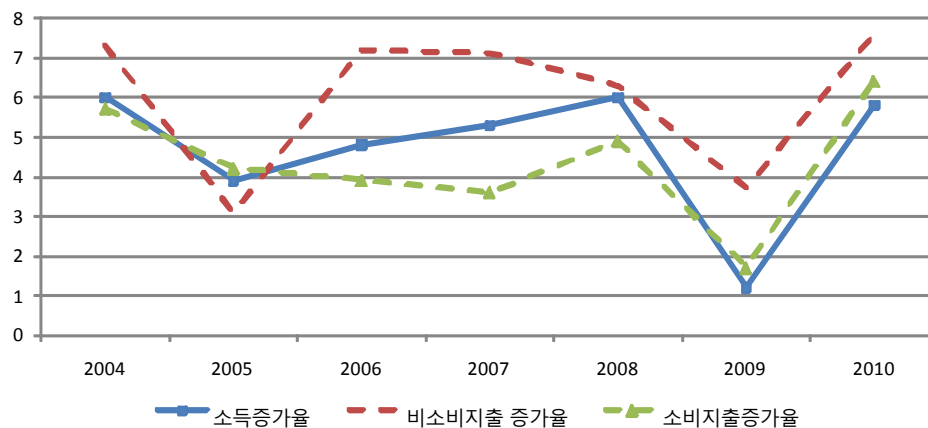
○ 낮은 금리는 기대되는 이자소득을 감소(소득효과)시키는 등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저축유인을 저하시킴.

○ 저금리 지속에 따라 가계대출이 부실이 우려될 정도로 크게 확대

□ 셋째, 공적연금 및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가계의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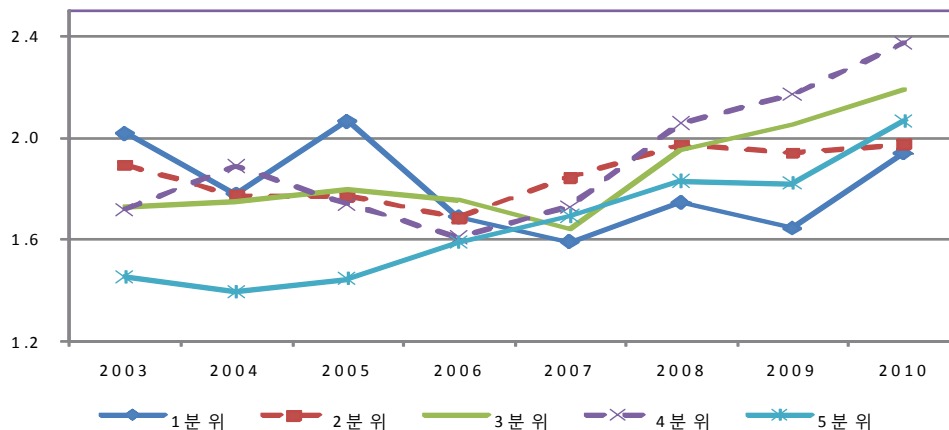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는 과거의 소비습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 소비지출보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경향<sup>1)</sup>을 보임.
  - 2010년의 경우에도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은 각각 7.6%와 6.4% 증가하면서 소득증가율 5.8%를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 가계소득 및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4>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이자비용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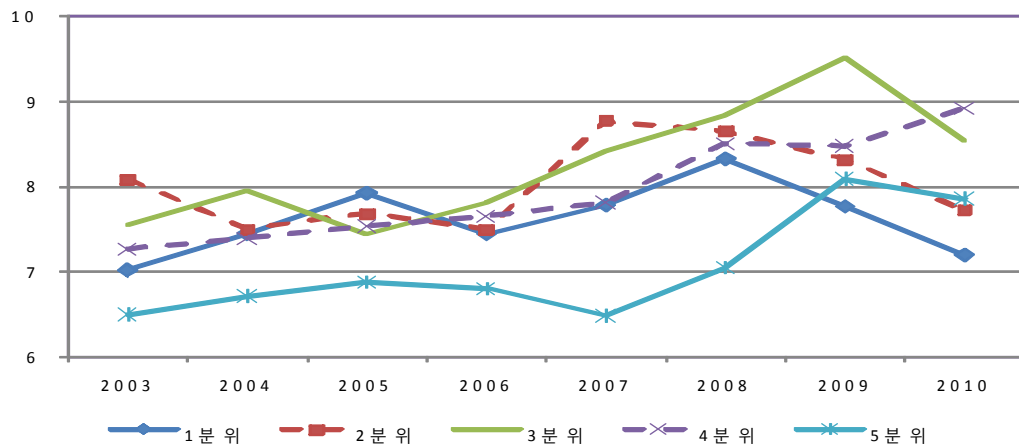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가계 저축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 지출이 거론되고 있음.

- 가계의 다양한 저축 목적 가운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저축(유증동

1) 유경원,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2009.

- 기)을 고려하면, 교육은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과 대체관계를 형성
- 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자산 축적보다 우선순위를 차지
- o 소득계층별로는 저축여력이 높은 중·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높음.

<그림 5>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가계 저축률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KiRi